



내 벗이 몇인가 하니 **수석**과 **송죽**이라

동산에 **달**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

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

⇒ 오우 소개

구름 빛이 **좋다**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

깨끗하다

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도 많다

종고도 그칠 것 없기는 **물** 뿐인가 하노라

불변성

⇒ 그침이 없는 물의 속성

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

순간성

풀은 어이 하여 푸르른듯 누르는가

아마도 변치 않을손 **바위** 뿐인가 하노라

영원성

⇒ 변치 않는 바위의 속성

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

솔아 너는 어찌 **눈서리**를 모르는가

지조, 절개 상징 고난, 시련

구천의 뿌리 곧은 줄을 **그**로 하여 아노라

그것으로 하여

⇒ 눈서리를 모르는 소나무의 속성

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**대구**

곧기는 **뉘** 시기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

누가 시켰으며

저렁고 사시에 푸르니 **그**를 좋아 하노라

대나무 절개

⇒ 사시에 푸른 대나무의 속성

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

밤중의 광명이 **너**만 한 이 또 있느냐

달, 광명

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

→ 과묵함

⇒ 어둠을 밝히는 달의 속성



내 친구가 몇인가 하고 생각하니 물과 돌, 소나무와 대나무로구나.
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 또한 반가운 친구로다.
두어라 이 다섯 외에 친구가 더 있어서 무엇하리. < 1수 >

구름 빛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검어지는 것이 잦고
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은데,
물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그칠 때가 없도다. < 2수 >

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바로 시들어 떨어지며
풀은 어찌하여 푸르자마자 누렇게 되느냐?
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. < 3수 >

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거늘
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이나 서리가 내려도 변함이 없느냐.
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알겠노라. < 4수 >

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면서
곧은 것은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이 비어 있느냐
그러면서도 일 년 내내 푸르니 나는 대나무를 좋아하노라. < 5수 >

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
밤중의 밝은 빛이 너만한 이가 있겠느냐.
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보고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친구가 될만하다. < 6수 >

갈 래 : 평시조, 연시조(전 6수)

성 격 : 예찬적,

제 재 : 水 · 石 · 松 · 竹 · 月

주 제 : 다섯 벗에 대한 예찬

출 전 : 고산유고 중 산중신곡

특 징 : 대상의 속성을 예찬함, 의인화,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남

해 설

수 · 석 · 송 · 죽 · 월을 다섯 벗으로 삼아 서시 다음에 각각 그 자연물들의 속성을 들어 자신의 자연애와 관조를 드러내었다. 이때 다섯 자연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인간적 덕성을 지닌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. 이는 고산 윤선도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것으로서,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어 시조를 절묘한 경지로 이끈 백미편이다.